

광주DJ센터 “올 매출 200억 돌파 목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년 대비 11.5% 성장 187억원 매출 달성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올해 매출 200억 돌파 목표를 수립했다.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과 소통의 글로벌 MICE 플랫폼’이라는 신경영비전 아래 ‘10-10-10’ 등 전사적 수익 성 개선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11.5% 성장한 18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10-10-10’은 매출과 순이익은 10% 늘리고, 관리비용은 10% 절감하는 재무구조 개선캠페인이다.

센터는 이같은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수등급 등 역대급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또 ACE Fair(문화콘텐츠), SWE ET(에너지), 그린카 등 주관전시회 12건을 비롯해 광주대표 음식페스티벌, 드론페스티벌 등 신규 대행사업을 추진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맥주축제, 머끼비 마켓 등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인권경영체계 구축, 일가정양립제도 강화, 광주사회혁신플랫폼과 협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센터는 올해 △포용적 상생협력 △고객중심 경영 △MICE 사업 선

도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 등 4개 분야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개관 이래 최초로 매출 200억 돌파와 함께 제2전시장 건립 등 지역 MICE 산업 대표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지역 MICE 산업 새로운 도약의 빌판이 될 제2전시장 건립은 센터 이외 제1주차장을 부지로 선정하고 현재 광주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심의를 거쳐 2021년 착공,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제2전시장 건립에 대비해 대형 전시회와 국제행사 유치, 신규전시 개발 등 사전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주력사업인 전시사업은 새롭게 추진할 광주인권평화박람회를 비롯한 총 15건을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새롭게 추진되는 광주인권평화박람회는 김대중포럼 등 컨퍼런스와 함께 국내외 민주인권평화 관련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아 광주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지역 대표 브랜드 행사로 육성해 갈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에너지, 4차산업, 교육, 민주인권평화 등 5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역간 MICE 유치 경쟁 상황에 대비하고, 기동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광주시가 혁신플랫폼 협업 확대, 인권경영체계 확산, 일가정양립제도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개관 이래 최초로 매출 200억 돌파와 함께 제2전시장 건립, 광주인권평화박람회 및 김대중포럼 개최, 전시회 등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5대 분야 특화마케팅 등 추진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며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동구, 아음식문화지구 상징조형물 설치 완료

광주 동구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구시청 일원에 조성 중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문화전당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이번에 설치된 문화전당 방향 상징조형물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주민협의회와 구시청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설치를 마쳤으며, 앞으로 아시아음식문화거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주 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평가를 이뤘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됐으며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3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남구 “교복 내리사랑, 버리지 말고 기증하세요”

광주 남구는 중·고등학교 졸업 및 입학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일선 학교와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수집에 나섰다.

남구는 6일 “경자년 새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교복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복 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 집에서 보관 중인 교복이나, 재학생 가운데 신체에 비해 교복이 크거나 작아서 입지 않은 교복이 있다면 주거지에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남구청 7층 교육지원과에 기증하면 된다.

훼손이 심한 교복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복 수집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된다.

북구, 위생·친절음식 업소 5곳 선정

광주 북구는 ‘2019 위생·친절 평가’를 실시, 최우수 업소 1곳과 우수업소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북구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수업소를 선정, 올바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좋은 식단 실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좋은 식단 실천, 영업장 위생·정결·종사자 청결, 친절 서비스 등에 대해 평가했다.

최우수 업소로 선정된 용봉동 해뜰날포차는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와 영업장 위생, 고객 편의시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업소에는 용전동 용전식육식당, 용봉동 고수닭갈비 전남대점, 유동 함양 육닭, 용봉동 맵촌 용봉점 등이 선정됐다.

광산구, 문체부 U-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광주 광산구가 2020년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스마트도서관’ 이란 자판기 형태의 365일(05:00~24:00) 무인 자동화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으로, 광산구립도서관에서 회원가입 시 이용 가능하다.

광산구는 지난 2019년 1월 지하철 송정공원역과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을 개관, 운영 중에 있다. 기기 1대당 200여권 도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도서교체가 이루어진다.

임형택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 “인사제도 개편, 과감한 발탁인사”

“전문직 인사 기준 매우 춤촘…현행 제도로는 어려워”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6일 열린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제도를 개편해서라도 과감한 발탁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말 송년기자회견에서도 일련의 승진제도 개편을 예고해

추후 인사제도 전반의 개편이 기대된다.

장 교육감은 6일 열린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이 되고 나서 느꼈던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인사”라며 “현재의 인사규정 특히 고교, 전문직 인사 규정은 지극히 복잡하고 춤촘하게 짜여 있어서 교육감의 인사권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신하고 능력 있는 분을 발탁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역동적인 인사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전남교육의 정체들을 모아내야 하고 이를 인사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직의 안정성과 함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사 관련 규정을 과감히 재개정하고 제반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는 상대적이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에 연연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일반직 인사 4번, 전문직 인사 3번을 단행했다”며 “혁신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안정을 내세워 혁신의 측면에서는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평가는 양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 교육감의 발표에 따라 도교육청은 4월까지 TF팀을 구성해 인사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성은 기자

무안군 공고 제2020-1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남성 복길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도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푸리오니 니스유자 및 이해관계인 인원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도지 및 물건조사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전라남도

2. 사업 개요

○ 사업의 명칭: 남성·복길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사업의 위치: 제3800m 무안군 청림면 복길리 · 남성리 일원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0. 1. 7.(월) ~ 2020. 1. 22.(수)

4. 열람장소: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5. 보상시기 및 절차: 2020년 2월 이후 예산법 위반에 의해 3인식 청정지

예인별 보상대상토지 등 내역·보상액·보상절차·협약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주무 손보보험부의 요청이 있으면 각각의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기 보상금은 “도지”에서 토지의 품질 및 보상액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기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식 · 도지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기자를 주천하고 시·나거나 · 도지 또는 소유자는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기자를 주천하고 시·나거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감정평가기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기자를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 추천한 토지에 대한 토지의 10%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도지”에서 토지의 품질 및 보상액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기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증·혈증·인강증·명지 등)을 열람기간 만기일부터 3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며

▶ 감정평가기자 추천인사

영암군 공고 제2020-1호

영암군 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영암군 학산면 도천리 33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내붙임 의견서를 서면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영암군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등급	별명	변경	면적 (m ²)	기 능	연장 (m)	기 정	종	경	사 험	주 오	최 초	경
기 정	소로	2	604	8	국지	446	중로	소로	일반	-	2020.08.28. 영암군 고시 제2003-30호.		
변 경	소로	2	604	8	국지	433	중로	소로	일반	-			
기 정	소로	2	625	8	국지	55	소로	중로	일반	-	2020.08.28. 영암군 고시 제2003-30호.		
변 경	소로	2	625	8	국지	67	중로	중로	일반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면과 도로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tbl_r cells="3" ix="3" maxcspan="1" maxrspan="1" usedcols="